

기도학교 1강 -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고백하기]

기도생활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

[암송구절]

[렘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간 증]

직장에서 강제퇴직을 당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소.”,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아니예요~ 당신은 아직 한 가지일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하였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철야와 금식을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자 케몬스 윌슨입니다. 윌슨은 성공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삶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살라는 명령은 받았지만 어떻게 살라는 명령은 받지 않았기에 삶은 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길이 되신 분을 압니다.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기도로 이루셨습니다. 기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6:5-8]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것이 있다 하십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가 잘 됩니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입니까?' 질문을 하십니다. 인간의 본성이 위급할 때 신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면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는 솔직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나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실상은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 6: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철저히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기도를 제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세트(set)화 시켰습니다. 좀 더 종교적인 용어로 빌면 의식화시켰습니다.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밥 먹은 후에 하는 기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그대로 하게 했습니다. 내용만이 아닙니다. 시간까지 세트화 했습니다. 9시, 12시, 3시는 기도시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본질에서 벗어난 형식적인 기도, 중심이 없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들의 기도는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사람을 보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잘못된 기도는 증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마 6: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

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른 말은 '바타로 게오'라는 헬라어 말인데,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의미가 있는 말이라도 생각을 담지 않고 계속 중얼거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반복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반복하셨습니다. 성경에는 3번 밖에 반복이 안 나왔지만, 밤을 세워가며 기도하실 때 3번만 반복해서 기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흘러 내리는 땀방울에 피가 섞였습니다. 자기의 전인격,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반복적인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놓고는 사람보고 기도하고, 인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 기도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 하나님은 골방에서 만나기 원하십니다.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의 원어인 그리스어 '타메이온'은 '창고', '내실', '침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방'이란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나와 하나님만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다른 삼자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할 필요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골방입니다. 하나님은 그 골방에서 우리와 깊은 대화를 하기 원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채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면 벌써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3장 17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습 3:17]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하늘의 우물을 파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우물을 팝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치유 받습니다.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 맛으로, 그때 얻는 능력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십니다.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묻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 6: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말을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설득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시 139:4]**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무슨 슬픔이 있는지 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 5:2]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한 마디를 해도 내 모든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선한 것을 우리에게 안겨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즐꼬? 어떻

게 해야 이 좋은 것을 성도들이 받아서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할까?’ 고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기도 하라하십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성숙함을 배워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조건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 55: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마 7: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빌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대상 4: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음서가 중에 ‘나의 기도하는 것 보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 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 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통성기도]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